

#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A Qualitative Approach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성미애\*\*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g, Mi-Ai

###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through intimacy and interaction with matrilineal kin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arried men and women aged from their mid-30s to mid-40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imacy range of participants was restricted to blood-based kins. The power hypothesis was supported for male participants. Some wanted to actively contact their spouse's family members, while others did not want to be connected with the spouse's families. Interaction with wives' families was based on the exchange perspective. In contrast, a complicated mechanism existed in the intimacy and interaction of female participants. Most of them were connected with in-laws in a passive way but actively interacted with their family-of-origin. However, some female respondents did not have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Undifferentiation between mothers and married daughters negatively influenced their relationships.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is another kind of shackle of patrilineal norms.

▲주요어(Key Words) : 양계화(bilateralization), 친밀감(intimacy), 상호작용(interaction), 미분화(undifferentiation), 권력가설(power hypothesis)

### I. 서론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오늘날 한국 가족에서 보여지는 양계화 현상을 진단하고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화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들(옥선화 외, 2000; 이동원 외, 2002; 장경섭, 1994; 장현섭, 1994 등)은 한국 가족이 외면적으로는 부계가족의 원리가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 이념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

지만, 그 내면에서는 보다 복잡한 원리로 진행되어 일관된 한 가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어떤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수준에서 편의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은 가족간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유발하는 측면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목되는 현상이 양계화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계화는 출계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과의 상호작용이 부계와 모계 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조정문, 1997)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관계로서의 친족관계는 사회구조는 물론 경제적 생산양식, 사회규범, 가족제도, 가족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친족관계는 이러한 여타의 사회적 변수들의 역사적 변동에 따라 변화

\* 이 논문은 2004년 전기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저자 : 성미애 (E-mail : eliza\_s@knou.ac.kr)

해 갈 수 밖에 없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이광자, 1988). 따라서 친족관계 간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양계화 현상은 오늘날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방향을 파악할 때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양계화를 바라보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양계화를 한국 가족이 보였던 부계일변도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변화로 보는 입장(김선영, 2002; 조정문, 1997)으로, 학계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 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한국 가족내 친족간 상호작용이 부계에 한정되지 않고 모계로까지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두 번째 입장은 현 상황에서 보이는 양계화의 허점에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한국 가족의 양계화가 대칭적 양계화라기 보다는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을 보이며(한경혜, 윤성은, 2004), 기능적인 관계로서 친정과의 접촉이 잦아지며 혈연 중심의 가족간 연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가족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이재경, 1999).

이처럼 지금은 양계화 현상이 과연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편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또 하나의 가족문제로 등장할 여지가 있는 현상인지 진단해 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주장대로 양계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보웬(Bowen)이 말하는 세대간 미분화 현상을 강화시켜 결국은 세대관계에도 역기능적인 영향을 주는 작용만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어 있는 양계화 현상이 중산층 중심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부(富)의 세대간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떤 맥락이나 어떤 메카니즘으로 양계, 특히 부계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처가(친정)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방법보다 복잡한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갖고서 발견을 중시하는 연구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조용환, 1999, p.20)의 하나인 반구조화된 질문을 토대로 심층면접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양계화 현상을 통해 한국 가족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는 만큼, 현재 인간발달 주기 상 중년기에 해당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연령층인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에 해당되는 기혼남녀를 면접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경우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일상적인 삶도 돌아볼 인간발달 시기에 있는 사람이며, 우리사회에서 변화를 주도한 세대이기 때문에 부계가가부장제 일변도 가족 문화에 어떤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양계화 현상을 진단하기에는 유익한 연구대상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 및 친족 관련 현상에서는 항상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옥선화 외, 2000; 이재경, 1999 등)에 따라 남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해 한국 가족에서 양계화 현상이 갖는 허와 실을 진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실제적으로 세대관계 통합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 가족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친족관계이다. 조정문(1997)은 전통 한국 사회의 친족관계가 부계 중심적이어서 여성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젊은 기혼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양계화 경향을 조사한 결과, 최근에는 친족관계가 양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친족관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는 성별 차이를 보여, 편리성 가설(양가의 거리)과 권력 가설(양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결정 주도권)이 여성이 인지하는 친족관계 방향성을 가장 잘 설명하며, 남편이 인지하는 친족관계의 방향성은 편리성 가설과 규범 가설(남편의 출생순위와 성역할 태도)로 잘 설명된다고 하였다. 김선영(2002, p.246) 역시 전국 성인남녀 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규범은 여전히 부계 중심적 관계를 강조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계 중심적이거나 혹은 모계 중심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재경(1999)은 이러한 친족관계의 양계적 경향은 기능적인 관계로서의 친정과의 잦아진 접촉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부계와 모계 친족관계의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혈연중심의 양계화 현상은 중산층의 젊은 부부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위기와 불안을 부모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기능적이며 보수적인 대응일 뿐 친족관계의 평등화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혈연 중심의 가족간 연대를 강조하는 가족주의의 변형에 불과한 신가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경혜, 윤성은(2004)은 전국 성인남녀 1,755명을 대상으로 세대관계의 구조적, 내용적 차원에서 양계화 현상을 살펴보면, 한국 가족은 양계화된 모습과 부계적인 모습이 혼재하며, 부계 친족 및 모계 친족과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칭적 양계화가 아니라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부계중심적으로 규범화된 친족유대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실제적 필요에 의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보면, 한국 사회의 양계화 현상은 부계 중심의 가족 및 친족 간 상호작용에 반기를 드는 현상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지만, 가족가치관의 변화나 친밀감을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또 하나의 가족주의의 표상일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어 있는 양계화 현상이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富)의 세대간 세습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양계화 현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성

#### 1.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 중 하나인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이 도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지 아니면 가족가치관의 변화나 친밀감을 전제로 발로된 현상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해 양계화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령대에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집단이 인간발달 주기에서 볼 때 자신의 삶이나 가족의 삶을 성찰해 보는 중년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과 친족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보자를 선정하고자 전형적 사례 선정법을 택하였다. 전형적 사례 선택은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조용환, 1999, p.28)으로, 연령과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양가 부모의 생존 여부, 양계와 거주지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제보자별 새로운 내용 없이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시점에서 면접을 종료하였는데, 최종 심층면접 대상자는 17명(남성 9명/ 여성 8명)이었다.

면접은 주로 제보자의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면접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약속 장소 근처의 커피숍에서 면접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시

기는 2004년 7월 8일부터 2004년 7월 29일 사이였으며, 1회의 면접을 통하여 제보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 소요시간은 사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보통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었다.

면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양계 간 상호작용 양상 및 의미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제보자들이 자연스럽게 양계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 등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 내용은 제보자의 양해를 얻어 소형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의 분석 절차

면접 내용은 우선 남녀 각각 3명의 면접 자료를 토대로 초기 코딩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가 양계화 현상의 저변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과연 현재 한국 가족에서 보여 지는 양계 간 상호작용을 진정한 의미의 양계화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능적, 편의적 차원에서 처가(친정)와 상호작용 하는 것에 다른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인 만큼, 양계 간 상호작용 이면에 깔린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도출된 중요 개념이 친밀감 대상과 처가(친정)와의 상호작용에 부여하는 의미 등이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코딩한 뒤, 나머지 제보자의 면접 내용도 코딩하였다. 이러한 단계적인 코딩 과정은, 면접 자료를 분석할 때 내적 타당성을 높여준다(Sweet & Moen, 2004). 또한 면접 자료를 분석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외적 타당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족학 전문가 1명과 따로 코딩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때 저자와 불일치하는 코딩 내용은 다시 논의하여 일치를 보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 3. 제보자의 특성

##### 1) 제보자의 코호트적 특성

이 연구의 제보자는 현재 중년기에 해당되는 기혼남녀이다. 중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로,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높은 공헌도가 기대되는 만큼 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년은 개방적인 마음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자기 확대에 활용하며, 다양한 견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유안진·김혜선, 2002, pp.307-311).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이 연구의 제보자들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가족이나 친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계를 정립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성장기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기와 일치하는데, 이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성장속도를 맞춰야 했던 세대이다(변정수, 1999). 이들이 유년기를 보낸 1960년대는 5.16 군사혁명을 시작으로 형성된 군사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민적인 사회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천과 함께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물질적 혜택도 받으면서 그야말로 변화로 점철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보자 중 대학을 졸업한 제보자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386세대(30대 연령, 80 학번, 60년대 출생코호트)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신군부 정권 아래 대학에 들어와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대학을 보낸 좌절과 상실의 세대이며, 동시에 6.29 선언, 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민주화, 초고속 성장의 성취감도 맞은 세대(조선일보, 1999. 11. 1.)로, 시대가 주는 정신적 고뇌와 물질적 풍요라는 양극단의 현상을 경험한, 독특한 성장배경을 가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양계화 현상의 기저에 깔려있는 메카니즘을 파악한다면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이 현재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 2) 제보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이 연구를 위해 면접한 제보자는 총 17명으로, 남성 제보자가 9명, 여성 제보자가 8명이었다. 제보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제보자의 연령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으며, 평균 연령은 남녀 모두 40세였다. 제보자의 직업은 다양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박광진 씨와 한재욱 씨가 교수 및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진한 씨, 최진배 씨, 정덕호 씨는 자영업, 그리고 김호영 씨, 김형순 씨, 고영준 씨, 안현수 씨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조윤진 씨, 오은주 씨, 권수경 씨가 전업주부였으며, 강미옥 씨, 민주원 씨는 각각 고용 미용사, 골프장 사무관리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임성희 씨는 과외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서수진 씨, 이희경 씨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학력은 남성 제보자의 경우 최진배 씨와 정덕호 씨를 제외한 다른 제보자들은 대졸 이상의 높은 학력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강미옥 씨, 민주원 씨, 권수경 씨, 이희경 씨 등이 고졸이었고, 나머지 반수는 대졸이었다. 출신지는 비교적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는데, 남성 제보자의 경우, 박광진 씨와 김호영 씨는 서울, 최진배 씨는 전라북도의 농촌 지역, 그리고 나머지 제보자들은 지방 대도시나 중소도시 출신이었다. 여성 제보자의 경우, 강미옥 씨와 오은주 씨는 서울, 조윤진 씨, 민주원 씨, 이희경 씨는 각각 전라남도 어촌과 경기도 농촌 지역 출신이었다. 나머지 여성 제보자들은 경상북도와 경기도 지역 대도시 및 중소도시

<표 1> 제보자의 개인적 특성

성별	가명	연령 <sup>1)</sup>	직업	학력	출신지	형제서열
남성	박광진	36	교수	대학원졸(박사)	서울	2남1녀 중 막내
	김호영	45	대학직원(시설관리)	대졸	서울	3남1녀 중 막내
	한재욱	37	기업 연구원	대학원졸(석사)	경북 대도시	2남1녀 중 둘째
	이진한	42	자영업(제조업)	대졸	충남 중소도시	1남1녀 중 막내(장남)
	최진배	42	자영업(아파트상가 쌀집)	중졸	전북 농촌	5남1녀 중 넷째
	정덕호	40	자영업(호프집)	고졸	충북 대도시	3남1녀 중 셋째
	김형순	39	회사원(사무직)	대졸	강원 중소도시	2남3녀 중 넷째(장남)
	고영준	38	은행원	대학원졸(석사)	전남 대도시	4남2녀 중 막내
	안현수	41	대학직원(사무직)	대졸	강원 중소도시	3남1녀 중 둘째(장남)
여성	조윤진	42	전업주부	대졸	전남 어촌	2남1녀 중 첫째
	강미옥	40	미용사	고졸	경북 대도시	2남4녀 중 셋째
	서수진	38	자영업(공인중개사)	대졸	서울	1남1녀 중 첫째
	임성희	43	과외지도 아르바이트	대졸	경기 중소도시	1남1녀 중 첫째
	민주원	38	골프장 사무관리	고졸	전남 어촌	2남5녀 중 셋째
	오은주	39	전업주부	대졸	서울	1남4녀 중 막내
	권수경	35	전업주부	고졸	경북 중소도시	2남2녀 중 막내
	이희경	42	자영업(소규모 미용실)	고졸	경기 농촌	5남2녀 중 넷째

<표 2> 제보자의 가족 특성

가명	배우자연령 <sup>1)</sup>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	배우자 출신지	배우자 형제서열	자녀	부모 생존 여부	부모 동거 형태
박광진	36	회사원	대학원졸(석사)	서울	1남1녀 중 첫째	아들1	양가 부모 생존	부모와 동거
김호영	31	전업주부	고졸	서울	1남2녀 중 둘째	딸2	양가 모 생존	비동거
한재욱	33	전업주부	대학원졸(석사)	서울	3녀 중 둘째	딸1	양가 부모 생존	비동거
이진한	38	전업주부	고졸	서울	3남4녀 중 막내	딸2	부 및 장모 생존	비동거
최진배	39	자영업(쌀집)	고졸	충북 농촌	2남4녀 중 다섯째	아들1	양가 모 생존	장모와 동거
정덕호	39	전업주부	고졸	충남 농촌	1남2녀 막내	아들1	양가 모 생존	비동거
김형순	35	전업주부	대졸	강원 농촌	1남4녀 중 셋째	아들1, 딸1	양가 부모 생존	비동거
고영준	38	전업주부	대졸	경남 대도시	1남5녀 중 둘째	딸1, 아들1	부모 및 장모 생존	비동거
안현수	35	보육교사	대졸	경남 농촌	2남2녀 중 셋째	아들2	양가 부모 생존	비동거
조운진	41	자영업	대졸	전남 어촌	3남2녀 중 셋째	딸2	양가 부모 생존	비동거
강미옥	43	자영업	고졸	충청 농촌	2남3녀 중 넷째	딸1, 아들1	양가 모 생존	비동거
서수진	40	자영업	대졸	경남 대도시	1남1녀 중 장남	딸1, 아들1	부모 및 시모 생존	시모와 동거
임성희	47	대기업 간부	대학원졸(석사)	서울	2남2녀 중 셋째	아들1, 딸1	부 및 시부모 생존	비동거
민주원	43	자영업(인터넷)	전문대졸	전남 농촌	3남2녀 중 막내	아들2	양가 부모 생존	비동거
오은주	41	의사	대졸	서울	3남2녀 중 막내	딸1, 아들1	양가 부모 생존	비동거
권수경	39	회사원(기능직)	고졸	경기 농촌	4남 중 장남	딸2, 아들1	시부모 및 모 생존	비동거
이희경	42	자영업	대졸	충남 중소도시	2남4녀 중 넷째	아들2	양가 모 생존	비동거

출신이였다. 형제 서열은 남성의 경우 이진한 씨, 김형순 씨, 안현수 씨가 장남이었으며, 그 외 제보자들은 지차남에 해당되었다. 여성의 경우 조운진 씨와 서수진 씨, 임성희 씨가 장녀였으며, 그 외 제보자들은 지차녀에 해당되었다.

다음, 제보자의 가족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배우자의 연령은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에 걸쳐 있었는데,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제보자의 평균 연령과 1살 밖에 차이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전업주부와 자영업 종사자가 많았으며(각각 6명), 그 외 회사원(2명), 대기업 간부, 의사, 보육교사(각각 1명) 등이었다. 배우자의 학력 수준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7명), 다음 고졸(6명), 대학원졸(3명), 전문대졸(1명) 순서였다. 자녀는 대부분이 2명을 두었고(12명), 1명을 둔 경우가 4명, 3명을 둔 경우가 1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8명이였다. 제보자의 부모 생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양가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양가의 어머니가 생존하는 경우가 5명이였다. 부모와의 동거형태를 살펴본 결과, 비동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14명의 제보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었다.

#### IV.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

심층면접 결과 양계화 현상의 기저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양계 친족 중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과 처가(친정)와의 상호작용에 부여하는 의미였다. 제보자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내상을 언급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계 간 상호작용이 도구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서적 관계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처가(친정)와의 상호작용에 부여하는 의미 속에서 양계화 현상의 이중적 의미가 잘 드러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1) 양계 친족 중 친밀감 대상

###### (1) 내 피붙이니까 더 가깝다...

남성 제보자의 경우 한 살 차이 나는 처남과 말이 잘 통해서 친밀하게 느끼는 박광진 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은 김호영 씨의 “내 피붙이니까는 더 가깝다 뭐 이런... 같은 말을 한 마디 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피붙이 개념이 존재하였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각 개별 대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범주로 보면 혈족 중심의 본가 구성원들이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영준 씨 경우에는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도 친밀한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고영준 씨는 대학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큰 형네 집에 거주하면서 큰 형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척은 주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이며, 혼인을 통한 인척

&lt;표 3&gt; 남성 제보자의 친밀감 대상

제보자	친밀감 대상
박광진	처남
김호영	누나, 둘째 형
한재욱	여동생
이진한	아버지
최진배	미혼 남동생
정덕호	어머니, 미혼 남동생
김형순	둘째 누나
고영준	큰 형수, 둘째 형
안현수	본가 식구

관계는 공식 관계일 뿐 친근한 관계로 발전되지 않는다(옥선화 외, 2000, p.129)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남성 제보자의 경우 기혼 남자 형제를 친밀한 대상으로 밝힌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기혼 남자 형제의 경우 부계제 사회에서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주로 갈등 관계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장남이 부모 부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제 규범은 어느 정도 무너졌으나 그것에 대한 대안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 중심으로 부모 부양의 주체를 인식(떠넘기려고 하는 측면도 있음)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여자 형제와는 달리 남자 형제간에는 서열 개념이 정서적 상호작용을 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 제보자들은 기혼 남자 형제의 배우자가 형제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는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구. 동생 결혼 초기에는. 그러니까 사사건건 자기네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싸울 때도 있죠. (중략)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를 하냐면 애(기혼 남동생 지칭)는 항상 빼요. 적극적으로 안 해. (중략) 둘째구 자기가 할 의무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할라 그래. (중략) 동생은 이제 서울에 살지만 가까운 데도 자주 못가요. 오히려 이제 누나들 집에 가는 거 보다 동생 집에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부담이 돼. (중략) 동생이니까 손아래 사람이 손위 사람을 찾아와야지 손위 사람이 밑으로 찾아 다니는 건 좀 안 좋거든요, 느낌이... 저두 그래요... (중략)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와이프들의 성격쪽으로 확 따라가요. 그니까 저희 동생두 제수씨 성격을 따라 가는 거 같애. 그니까 제수씨가 다니는 걸 싫어해. 그니까 (우리 집으로) 안 와. 그럼 저희도 안가요. 그러니까 동생하고는 오히려 왕래가 없어요, 형제간인데. 그니까 그거는 이유가 그 제수씨 성격 같은 거

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 같아요.” (김형순 씨)

반면, 여자 형제와의 관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학시절 여동생과 함께 자취를 했다는 한재욱 씨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김호영 씨나 김형순 씨의 진술을 보면, 기혼 남자 형제 간에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두고서 상호 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오히려 여자 형제들에 대해서는 출가의외인이라는 인식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존재로 기대하지 않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손위 여형제인 누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의지하거나 의논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친밀감을 보였다.

“동생이 생각하는 거 하고 장남인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좀 틀려요, 생각이. 누나들은 어차피 틀리든 맞든 간에 별개니까 트러블이 안 생기는데 동생하고 제수씨는 이견이 생기면... (중략) 누나들은 시집 간 거니까 제가 해야 되고... 누나들은 이제 한 다리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일이 있어도 뒤로 빠져서... 누나들이 이제 알아서 내지...” (김형순 씨)

“누나들이 반대를 하면 이제 아버님이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누나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못해요, 시집을 갔지만. 그런 거는 볼 때 누나 중에서도 큰 누나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 거 같고 저희 쪽 장인, 장모도 큰 처형하고 젤 많이 상의하는 거 같아요. (중략) 저는 누나들은 커서 가까워진 거 같아요, 큰 누나하고. 특히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나이 차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커서 커서 좀 가까워진 거 같아요. 동생이나 여기 남동생 같은 경우엔 커서 멀어지구 생활하면서 멀어지구...” (김형순 씨)

이처럼 남성 제보자의 경우 철저하게 본가 혈족 범위 내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기혼 남자 형제와는 부모 부양 등 의무 중심으로, 여자 형제와는 정서적 지원 제공자로 연결되어 있기에, 여자 형제에게 더 친밀감을 보였다. 이와 같이 처가 친족에 대해 친밀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처가와외의 상호작용이 여전히 친밀감을 전제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목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언니랑은 얘기가 잘 통해요, 뭐 시댁 얘기도 그렇구 살아가는 얘기가 다 비슷하니까...

<표 4> 여성 제보자의 친밀감 대상

제보자	친밀감 대상
조윤진	친정 어머니
강미옥	막내 여동생
서수진	어머니, 올케
임성희	남동생
민주원	큰 언니, 여동생
오은주	언니들
권수경	시댁 식구, 동네 아줌마
이희경	여동생

여성 제보자의 경우도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가 혈족 중심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남성 제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친정 어머니를 친밀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윤진 씨, 남동생 밖에 없는 임성희 씨와 서수진 씨, 전형적인 시댁 지향성을 보이는 권수경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형제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는 여성 중심의 경향을 보인다(옥선화 외, 2000, p.129)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그 중 본 제보자들은 여자 형제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 제보자들은 오은주 씨의 진술처럼 자랄 때는 원수질 정도로 싸웠지만, 지금은 친한 친구처럼 지내며 같이 늙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친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친해지는 배경에는 단지 피를 나누었다는 의식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여형제의 좋은 성격이나 비슷한 연령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여성 제보자들은 시가 식구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부담을 가져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피를 나누는 자매와 같은 자매인데도 이 언니는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게 없어요. 피를 나눠서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성격이 좋고 나랑 좀 맞다는 거 뿐이에요. (중략) 이 언니가 이제는 친구가 된 거 같아요. (중략) 이 언니 성격이 워낙 좋아요. 성격이 좋았고 포용력이 있어서... (중략) (그럼, 자라실 때도 언니들이랑 가까우셨나요?) 아우 아니요. 서로 싸웠어요. 하나뿐 갖구두 이 언니랑 엄청 싸우구요. 뭐 옷 갖구두 엄청 싸우구 그렇게 싸우구 뭐 싸우구 막 웬수, 웬수, 웬수였다가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너무 친해지구. (중략) 전화 자주 하거나 용돈만 의무적으로 좀 드릴 뿐이지 뭐 그런 거 전 전혀 안해요. 전화만 아버님이 전화 오면은 전화 그냥 의무적으로 받구 그런 거나 하지. 뭐 내가 살갑게 애뜻하게 뭐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처럼

은 좀 간격을 좀 두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은주 씨)

이처럼 여성 제보자도 남성 제보자와 마찬가지로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은 본가 혈족 중심으로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가와와의 관계는 의무적, 공식적이며, 본인의 본가, 즉 친정과의 관계가 정서적, 비공식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친정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양계화 현상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의미를 줄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한 대상으로 부양의 부담이 없는 여자 형제를 많이 꼽는 것을 보면, 남성에 비해 생식가족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축소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은 친정과의 관계 교류가 자신의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양계 친족간 상호작용 - 처가 및 친정을 중심으로-

(1) 아무래도 처가쪽에는 조금 신경이 덜 써지는 거죠, 자기 본집보단...

양계와의 거주지 근접성을 보면, 최진배 씨의 경우 장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한재욱 씨, 이진한 씨, 안현수 씨, 김호영 씨는 처가쪽 식구와 근접해서 살고 있고, 고영준 씨와 정덕호 씨는 처가와 본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광진 씨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말처럼, 일반적으로 양계화 현상의 시금석으로 처가(친정)와의 근접성을 들기도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처가와와의 상호작용에 부여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상이하였다.

① 처가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부여

㉠ 우리 어머니 오면은 편히 못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맘이 아프죠...

외면적 상호작용 양상에는: 거주지가 영향을 미쳐, 장모와 동거하고 있는 최진배 씨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가 식구들과 일상적으로 부대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모님을 모시다보니까 인자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많이... 그레가고 일년이면은 어머니 생일 때, 뭐 뭘 때 다 저희집에 와요. 생일 잔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갓집 식구들은 많이 대화를... 접근 많이 허는 거지. (중략) 자기 (장모를 지칭) 아프면은 아주 뭐 아

프고 좀 하면은 어디가 뭐 누가 뭐 어디 약이 좋다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누가 뭐 좋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야혀..." (최진배 씨)

그러나 최진배 씨의 경우 친밀감이 전제된 장모와의 동거가 아니라 아내가 장녀이며, 처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비자발적 동거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우울증', '속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장모와의 동거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준을 밝혔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자신의 본가 식구들이 자신의 집을 손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함께 있었다.

"나 우리 장모님한테 서운한 점이 많았다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없다면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부모도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엄청 쌓이게 되요.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서운한 점도 많고...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도 말만 '누구 아빠' 하면서 '자네 욕보네'하지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살면서도 생각해 주는게 없어요. (중략) 누구말대로 여자만 우울증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속병 많았죠. 나도 우리 어머니 올라오면은 남몰래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오면은 편히 못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맘이 아프죠. 나는 장모님한테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식구 오면은... 왜 저거허나 이거여... 그것 때문에 싸움도 몇 번 했어요." (최진배 씨)

㉠ 가는 게 있어야 뭐 오는 게 있는 거구,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건데...

한재욱 씨, 이진한 씨, 안현수 씨, 김호영 씨는 외형적으로는 동일하게 처가 식구와 가까이 살고 있었으나 내면적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한재욱 씨와 안현수 씨 경우는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처가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장모의 의지로 인해 처가로부터 어떤 측면에서든 지원을 받고 있는 유형이었다. 한재욱 씨는 "아들이 결국은 보면은 장가 보내고 나니까 아들 뺏긴 거랑 매 한가지잖아요" 라고 진술했듯이 장인, 장모의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예: 처가쪽 경조사 참석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장인, 장모에게 제공하는 등도 구체적인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재욱 씨는 처형이 결혼하지 않았고 딸만 있는 처가 쪽에서 만사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현수 씨도 결혼 전부터 며느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되도록이면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며, 처가

도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장인 어른도 가끔 다이렉트 연락을, 주로 그니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이쪽 (처가를 지칭) 일에서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딸만 셋이고 남자는 장인, 나 여기 (처제의 남편을 지칭)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깐 제가 실제로는 뭐 어떤 만사위 역할을 해야 되니깐... 뭔가 장인이 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니깐 장인이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디 외국에 여행사에 접촉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레인지 해 가지고 이렇게 여행하고... 이런 역할을 나나 여기 (처제 지칭)가 하는데, 인제 둘 다 안 바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한재욱 씨)

반면, 이진한 씨와 김호영 씨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처가와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속마음은 처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원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처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가지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근데 그 분(큰 처남 지칭)이 그 사업을 좀 하셨던 분이예요. 쓰러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잘못 돼 가지고 부모나고 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회사가. (중략) 그런데 조금은 좀 멀리해야 되겠다, 경계감을 느끼다 그러다 보니까 (처가 식구와는) 거리감은 있어요" (이진한 씨)

"이거는 짐사랍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생각인데 잘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인데 어쨌거나 좌우지간 뭐 그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내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좀 심관 하죠." (김호영 씨)

고영준 씨와 정덕호 씨 경우는 처가와 본가 모두 멀리 있는 경우였으나 처가와 내면적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어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고영준 씨 경우에는 처형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같은 만사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모님한테는 편하게 있어요, 그냥 아들처럼 지내고 저도 아들처럼 하고...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략) 일단 뭐 저희가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도 이제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하고 아니면 제사 때 장 보는 거 어머님 모시고 가서 장보는 거 준비하고... 아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략) 저는 어디 가나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깐... 그런데 와이프는 그렇지 못하니깐 처가로 가는 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 같아요.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고... 예전 처럼 남편... 결혼 생활 자체가 여자를 쥐고 사는 그런 게 아닌 같이 편하게 같이 사는 거니깐... 둘 다 편한 쪽이어야 하기 때문에 처가로 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는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영준 씨)

이처럼 앞서 언급한 한재욱 씨, 안현수 씨와 고영준 씨 경우 처가 쪽 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 친족관계가 양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권력가설(조정문, 1997)이 적용되고 있었다.

반면 정덕호 씨 경우에는 자신의 본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가와 의 상호작용은 철저하게 교환론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가와 의 교류는 자신의 집이 지원을 받는 방향이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아내가 본가에 대해서 잘 할 때만 가능한 조건부(條件附) 교류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내가 본가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처가와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누구라도 자기 집 재산 세 나가는 건 싫어하니까. 처갓집이 뒤에 옆에 살아서 우리 집 쪽으로 뭐래도 와서 언어오고 이러면 좋다 그리고 가져 나가면 싫다 그럴테구. 다 그런 건 이기적인 건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이해를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트러블이 있고 그렇다는 거지. (중략)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잘했어? 못했는데 내가 굳이 뭐 내 어머니 저렇게 팽개쳐 놓구 내가 장모님 모실 일 있나? 없을 거 같아요. 그니까 진짜 뭐 가는 게 있어야 뭐 오는 게 있는거구.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건데... (중략) 제 집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장남이 있는데 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는 해요. (중략) 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마누라가 이쁘면 뭐 처갓집 말뚝에두 절을 한단데 뭐 개한테두 절을 한단데 저렇게 별루 이렇게 우리 집 일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저두 잘 안 찾아 댕겨 지더라고요. (중략) 내가 그 만큼 도리는 (처가에) 하는데 그 만큼에 대해서 우리 처가 우리 집 쪽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사를 한 2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자영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못 찾아 댕겼었어요. (중략) 솔직하게 내가 그런 자책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몰라 두... 나두 뭐 애들 말로 하면 좀 빼졌다 그럴까... 내가 놀구 있으니까 뭐 하면 무 도와 달라할까봐 전화 안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두 막 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애들 말루 하면은 빼졌다. ‘나두 안해’ 이런 식이죠.” (정덕호 씨)

㉔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예요? 와이프 부모이건 우리 부모님이건...

박광진 씨는 본가에 거주하고 있으나 오히려 처가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경우로, 본인 스스로도 본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며 처가와 왕래한다고 밝혔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애한테도 보여주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은 처남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중략) 직계가 없단 말이야, 직계가. 그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중략) 우리 집이 좀 특이한 게 어... 시돈끼리 좀 친해요. 1년에 한 두 번 뵙죠. 그니까 뭐 서로 이해를 잘 하니깐 그니까 뭐... 전혀 뭐... 우리야 뭐 같이 사는데 뭐 (처가를 찾아뵙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 전혀 없죠. (중략)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예요? 와이프 부모이건 우리 부모님이건..” (박광진 씨)

이처럼 박광진 씨는 다른 남성 제보자와는 달리 양계화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원가족과 처가의 민주적인 가족 분위기, 원가족 및 처가로부터의 정신적, 경제적 독립, 처남에 대한 친밀감, 사돈 간 친밀성, 그리고 부부 간 전적인 신뢰와 동반자적 관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우리(본인과 부인을 뜻함). (중략) (부모님이) 권위가 있다기 보다 우리 집은 민주적인 집안이지 권위가 없지, 서로. (장인은) 가부장적인 면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니까 어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죠.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오래 하셨던 분이기에 때문에 탄력적인 면은 있어요. 그니까 융통성은 굉장히 뛰어나시고. 사적이긴 하지만 뭐 애나 사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전혀 그런 건 없고. (중략) 장인, 장모님도 거의 리버럴(liberal) 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 취향은 보수데 현실은

굉장히 리버탈(liberal)한... (중략) (친구와 비교해 볼 때) 신뢰의 측면에서 틀리다고 봐요. (중략) 저는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요 제 와이프랑 친구처럼 생각해요” (박광진 씨)

## ② 처가와 상호작용 주체

한편 처가와 근접해서 살거나 그렇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남성 제보자들이 처가와 갖는 상호작용은, 앞서 말한 본가 중심적 친밀감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주체는 아내였다. 그리고 남성 제보자 본인의 상호작용 이면에 깔려있는 내면적 메카니즘은 능동성 보다는 수동성, 적극성 보다는 피동성, 정서적 상호작용이기 보다는 도구적 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집사람은 자주 가요. 주로... 장모님이 와라 이래서 가구 그리고 뭐 또 무슨 뭐라 그럴까? 이게 처형 같은 경우가 이제 여동생이고 동생이고 하니까 가끔 보고 싶다 그래요. (중략) 근데 나두 나 같은 경우는 가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같이 앉아서 끈죽이 맞게 얘기해야지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가구 그러지. 나 같은 경우는 가면은 그냥 이쪽 방에서 잠자다가 밤 때 되면은 밥 먹구 그리고 처남하고 좀 얘기 뭐 그냥 형식적인 얘기죠, 뭐. “어떻게 지나나?” “바쁘세요?” 뭐 “힘드세요?” 뭐 그래봐야 이제 그러다보니까 나두 자주 가게 되질 않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김호영 씨)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본인의 친밀감과 위배되는 거주형태를 취하고 있는 남성 제보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반작용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의식적으로 본가와 자주 전화를 하는 것으로, 전국 규모의 표본으로 세대간 접촉 빈도를 살펴본 연구(한경혜·윤성은, 2004)에 따르면, 남편의 경우 본인 부모와 한달에 한 두 번 통화하는 경우가 41.5%로 가장 많다고 하였으나 본 제보자들, 특히 처가와 근접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처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서 1주일에 1~2번 또는 2주일에 1~2번 본가 부모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아내 모르게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였다.

“죄송은 하죠 지배적인 그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드리죠.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중략) 일년에 몇 번 무슨 케이스, 무슨 케이스나 이럴 때 이렇게 어머니한테 돈을 따로 드리죠. (중략) 와이프는 모르지” (한재욱 씨)

이처럼 남성 제보자들은 “아무래도 처가 쪽에는... 우리 아직 한국 남자들이 거의 그렇다시피 조금 신경이 덜 써지는 거죠, 자기 본집보단...”라는 정덕호 씨의 진술에 압축되어 있듯이, 처가와 근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가와 상호작용은 소극적, 수동적, 의무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비교적 처가와 근접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처가와 상호작용은 아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가설이 적용되어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비교적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친밀감은 본가 혈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가 쪽과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다른 반작용 전략을 사용하면서 본가와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변화의 단초가 보이는 사례도 있어, 원가족과 처가가 민주적인 가족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족 및 처가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양계에 동등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처가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2) 심적으로 가까운 것은 친정식구나 부대끼는 건 사실 시댁식구들...

친정 근처에 살고 있는 여성 제보자는 조운진 씨, 서수진 씨, 오은주 씨인데, 서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친정이 시댁보다 멀리 있는 경우는 권수경 씨, 이희경 씨, 임성희 씨이며, 친정과 시댁 모두 비슷하게 먼 곳에 있는 경우는 강미옥 씨와 민주원 씨였다.

## ① 친정쪽은 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요

여성 제보자의 양계 친척과의 외현적 상호작용 양상은 물리적으로 친정과 멀리 살면서 시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철저하게 시댁 쪽으로 지향성을 보여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적으로 느껴서 하지요, 지금은. 오라 소리 안해도 가고, 내 스스로 할라고 하는거지. 자발적으로 하는거죠” 라고 진술하는 권수경 씨 경우와, “심적으로 가까운 것은 친정식구나 부대끼는 건 사실 시댁식구들 하고 더 많이 부대끼죠, 같이 지내고 이런 거는...” 라고 밝힌 조운진 씨나 “시부모님이랑은 좀 간격을 좀 두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말한 오은주 씨 경우로 대변될 수 있었다. 권수경 씨를 제외한 다른 제보자들은 조운진 씨의 진술처럼 심리적으로 친정 식구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명절 등 공식적이고 의무적인 상호작용의 주된 대상은 시댁식구였다. 그 전형적인 예가 강미옥 씨와 민주원 씨로, 친정에서도 딸들이 휴가 행사를 주도하며, 친정 식구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도 외가쪽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절, 제사, 생신, 어버이날 등 공식행사 때는 시가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그런 경우에는 출가외인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친정쪽은 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요. 통화는 매일 정도 하다시피 하고 만나는 거는 한달에 한번 꼴, 그런 식으로 자주... (중략) 형부랑 제부들이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다. 한 두 살 차이 그 정도 차이 나니까 재밌어 하구 좋아해요. (중략) (가족) 행사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딸들과 그 집안의 아들과 그 차이점... 출가외인이라는 게 은연 중에 그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표현은 못하지만은 아들과 그 집안의 딸과의 그거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위가 아무리 장모, 장인과 친해 두 오빠가 가서 하는 거하고 또 저기 사위가 가서 하는 거 하고 그걸 틀리게 생각하시더라구. 그니까 그래서 출가외인이라는 게 있구나 느껴요, 느껴. 행동으로 하다보면 느껴지니까 그렇더라구.” (민주원 씨)

② 이제는 부모님하고 좀... 이제 친정에 가면 편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성 제보자의 양계간 상호작용의 내면적 메카니즘은 좀 더 복잡하여, 오은주 씨 경우에는 결혼 초기에는 양계화의 전형으로 보여질 정도로 친정 어머니와 밀착된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이 때 친정 어머니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도 김치를 가져오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도구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본인이 바쁜 중년기에 오면서는 거의 친정과의 상호작용도 피동적, 수동적, 의무적 차원으로 변해 있었다. 본인 스스로도 이러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늙어가는 친정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짜증을 많이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현재는 남편이 더 의지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부모님하고는 이제는 초창기에는 의지를 많이 좀 했었는데, 특히 엄마한테요. 지금은 이제 뭐 웬만큼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의지하진 않고 (중략) 지금은 남편한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중략) 이제는 부모님하고 좀... 이제 친정에 가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친정에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옛날에 애기가 쪼그맣을 때는 친정에 쪼르르 가서 친정 옆에 살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신혼 때는 요. 그래갖구 맨날 친정가구 전화오구 음식두 많이 갖다 먹구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가 해줘도 별로 이렇게 막 별로 이렇게 뭐 이제는 친정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친정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친정이 일단 내 생활이 굉장히 바빠요.

아들하고 애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어미님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자꾸 한 말 드 하구 한 말 또 하구 그거 너무 귀찮아요, 이제. 전화도 옛날에는 한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하루에 한번씩 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징정되고 막 그러세요. 애기가 돼 가시는거 같아서. 막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두 번 듣다 보니까 너무 듣기가 좀 그래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중략) 확실히 이제 좀 이기적인 거 같애.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쪼르르 달려 갔다가 지금 내가 편하구 편히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거의 뭐 이제는 무슨 날만 부모님 생신 때만 좀 만나는 거 같구.” (오은주 씨)

또한 임성희 씨 경우 본인은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우울 증세가 있으며 사별한 친정 어머니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친정 어머니를 ‘스토커’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분노에 가까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임성희 씨의 경우 친정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한 뒤 계속 본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우리 친정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거야. 왜 주냐면 제가 딸이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장녀였고 그니까 이제 모든 일에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거야. 그니까 옷을 사면 옷 사는 거조차도 간섭을 하시더라구. 모계사회가 앞으로 진짜로 올 거예요. 그니까 사사건건 간섭인거야. 집 살 때도 간섭, 조금 돈을 집 살 때 7년간을 조금 보태줬어요. (중략) 모계사회가 경제적으로 딸들이 이제 친경으로부터 보조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간섭을 하게끔 돼 있어요. 뭐든지. 난 그거를 그니까 자기가 본인이 나한테 그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보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막 하는거야, 이제. (중략) 딸을 (사위에게) 뺐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딸을 시집 보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애. 그니까 내가 과외를 하나 하면 그 과외비를 본인이 쓰고 싶어 하시는거야. 그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처럼 될 거 같애. (중략) 내가 엄마를 좀 나쁘게 말을 해서 모르지만 좀 스토커 같은 인상이 많이 들더라구.” (임성희 씨)

한편 여성 제보자의 경우에도 장녀인 경우에는 장남 콤플렉스 못지않게 장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남의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많이 희석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장

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해주는 측면이 사회적으로 있는 반면, 장녀의 경우에는 장녀보다는 며느리로서의 존재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서인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냥 제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느낌으로 아, 자식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또 자식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왜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딸이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요. 이런 말은 진짜 어디서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은 못해요. 근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또 장녀고, 또 동생들도 내가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윤진 씨)

이처럼 여성 제보자의 경우는 남성 제보자보다 친정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남성 제보자들 대부분이 본가 혈족에 대한 충성심을 기저에 깔면서 처가와 외의 상호작용을 교환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비해, 여성 제보자들은 전반적으로 상호작용의 범위를 친족관계보다 생식가족에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친정과의 상호작용이 도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가족, 특히 모(母)와의 관계가 미분화된 경우에는 친정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오늘날 한국 가족에서 보여지는 양계화 현상을 진단하고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현재 중년기에 있는 기혼 남녀들은 변화로 접철되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등 변화를 주도한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들이 접하고 있는 중년기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제보자들과 함께 가족과 친족관계에 대해서 말을 나눌 때는 가족과 친족이 삶의 희망이 되는 측면과 개인을 억압하는 측면, 또 가족과 친족에 대한 기대 때문에 힘들어하는 측면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남성 제보자의 경우 이러한 면접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처가에 대한 불만이나 본가 혈족에 대한 의무감, 형제간의 갈등, 부양에 대한 부담감 등을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여 심리

상담의 효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심층면접과 질적 분석을 통해, 양계화 현상의 기저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을 친밀감 대상과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부여로 진단할 수 있었다.

먼저,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본가 혈족에게 친밀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제보자의 경우 기혼 남자 형제들과는 부모 부양 의무를 둘러싸고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나름대로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부양 의무를 분담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여자 형제에게는 정서적 친밀감을 느낀다. 특히 누나의 존재가 남성 제보자에게는 의지의 대상이나 의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성 제보자 역시 자신의 본가 혈족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친밀감을 갖고 있는 대상은 주로 여자 형제이다. 여자 형제와는 서로 연령도 맞고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편안하고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바뀌어가면서 장녀들 역시 장남처럼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 장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전통사회에서처럼 출가외인 사상이 여성으로 하여금 본가와 외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도로, 남자 형제와 의무를 분담하지는 않지만, 여성들도 자신의 본가와 친밀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양계 친족 간 상호작용 양식을 보면, 남성 제보자의 경우 거주지 근접성이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처가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규범가설이 적용된다. 즉 한재욱 씨, 안현수 씨, 고영준 씨 경우 처가와 외의 상호작용에서 비교적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성 본인이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가 처가와 외의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주체이다. 남성 제보자들은 처가와 외의 상호작용에서 피동적, 수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처가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들 역할을 하거나 되도록 처가를 배려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하거나 아내 몰래 용돈을 드린다. 한편, 처가와 외의 상호작용은 교환론적 관점에서 인식하여 처가에서 지원이 오거나 아내가 본가에 잘 할 때만 조건부로 가능한 교류로 인식하는 측면도 보인다. 따라서 처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나 아내가 본가에 소홀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처가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 그러나 전형적인 386세대에 해당되는 박광진 씨 경우에는 변화의 단초를 보여 바람직한 양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박광진 씨는 양계 모두에게 동등

한 존재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남성 제보자와는 달리 민주적인 원가족 및 처가 분위기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원가족과 인척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부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양계화를 위해서는 부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 간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태도는 민주적인 가족 분위기 속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여성 제보자의 경우는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시대 지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과, 시대과는 거리를 두고 싶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내면 기제는 좀 더 복잡하여 시대 지향성을 내면화하여 철저하게 시대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 공식적인 행사는 시대 위주로 하지만, 친밀한 정서적 상호작용은 친정 식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형, 친정과의 교류가 악순환적으로 이어지면서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여성 제보자들은 남성 제보자보다 상호작용의 범위를 친족관계보다 생식가족에 한정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재 한국 가족에서 보이는 양계화 현상의 큰 중심 내용은 실제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한경혜, 윤성은(2004)의 지적이 대부분의 남성 제보자와 일부 여성 제보자의 경우에는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계제가 여성 종속이라면, 양계제 역시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면 여성 역할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성희 씨 사례로, 임성희 씨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자녀 양육이라는 도구적인 기대를 하였으며, 이러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기대가 고부관계뿐 아니라 모녀관계에도 갈등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또 미워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니가 직장을 왜 다니게 엄마가 왜 와서 애들 안 봐주냐구. 우리 시어머니는 (애들) 큰 고모가 약사니까 애들 둘 다 봐주는거야. (중략)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엄청 10년 동안 나를 미워... 지금도 미워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돈 안 번다고. (중략) 나도 우리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지. 왜냐하면은 진짜 엄마가 애들을 우리 애들을 봐줬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임성희 씨)

그리고 남성 제보자에 비해 생식 가족을 중시하는 여성 제보자에게는 양계화라는 현상이 친정 부모-기혼 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분화의 한 측면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치료학자 보웬(Bowen)이 말하는 연합성(togetherness)과 개별성(individuality)의 균형이 깨진 경우로, 개인의 독립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족의 미분화된 자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김혜선, 고성혜, 2005, p.112), 결혼을 통해서도 분화되지 못하여 모녀관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이 세대간 독립을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표면적인 양계화 현상은 “시대과의, 친정과의 관계는 안개 속의 관계예요. 안개 속에 관계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짐을 떠맡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라는 임성희 씨의 말처럼, 또 다른 세대간의존, 비현실적인 기대, 기대감이 좌절되는 데서 오는 절망 등을 초래하면서 세대 관계를 악화시킨다.

또한 한재욱 씨, 고영준 씨, 오은주 씨, 임성희 씨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처가(또는 친정)가 기혼자녀의 선택 마련 등에 지원을 하면서 부(富)의 세대간 세습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박광진 씨의 경우같이 세대 간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전제하지 않은 양계화 현상은 결국 또 다른 가족내, 그리고 사회 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양계화 현상을 부계에 대한 충성도와 도구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적 유대임을 인식하지 않고 설블리 부계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 가족에서는 세대 간 독립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세대관계가 미분화되거나 부(富)의 상속 통로가 되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세대간 악순환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양계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바람직한 양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는 드러나기 힘든 양계 친족 간 상호작용의 이면적인 측면과 한국 가족에서 보여지는 양계화 현상의 허상을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를 좀 더 풍부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양계화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혼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가 기혼 자녀 세대에게 갖고 있는 친밀감 수준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부여, 그리고 이면에 작용하는 기제를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를 심층 면접하여 이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친밀감과 상호작용 양상을 통해 양계화 현상을 살펴보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이나 가족 및 친족 개념, 기혼 형제 자매 관계가 갖는 의미 등에 대한 논의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갖는

존재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본 뒤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6년 03월 08일

□ 심사 일 : 2006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5월 29일

### 【참 고 문 헌】

- 김선영(2002). 친족관계. 이동원 외.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 김혜선·고성혜(2005). **가족상담 및 치료**.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공세권·조애저(1994). 가족의 변화: 그 관점과 쟁점. **한국청소년연구**, 16, 5-22.
- 변정수(1999). 현대사의 상징, 386세대. 함께 사는 사회. **삼성의외보** 7-8월호.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2000).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 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 결과 보고서.
- 유안진·김혜선(2005).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김현주·최선희·함인희·김선영(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 조선일보(1999). 386세대-인간의 시대, 21세기를 꿈꾸며. 1999. 11. 1.
- 조용환(1999). **결적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정문(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3(1), 87-114.
- 한경혜·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3.
- Bailey, K.(1994). *Methods of social research, (4th ed.)*. New York: Free Press.
- Sweet, S. & Moen, P.(2004). Coworking as a career strategy: Implications for the work and family lives of university employees. *Innovative Higher Education*, 28(4), 255-272.